우즈베키스탄

O'zbekiston Respublikasi

초승달과 흰색 5각 별 12개를 배치하였는데,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상징하며 12궁도를 나타내. 하양은 평화를, 초록은 자연을, 빨강은 생명력을, 옥색은 영원한 밤과 생명의 근원인 물을 상징하고 있어.

Assalamu alaykum

아살러므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Preview!

우즈베키스탄을 빠르게 살펴봐요

1. 수도는 타쉬켄트(Tashkent)입니다.
2. 크기는 447,400㎢ (우리나라의 4배)
3. 고온 건조한 사막성 기후
4. 인구는 3,597만명입니다. (우리나라의 70%)
5.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6. 플로프라는 일종의 볶음밥이 대표 음식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알아가기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우즈베키스탄은 페르시아 문화,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으로 인한 그리스와 유럽 문화, 아라비아의 이슬람 문화 등이 상호 작용하며 형성된 입체적인 역사성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세기에는 몽골의 영향에 들어가기도 했죠. **14세기 우즈베키스탄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아미르 티무르'는 티무르 제국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티무르 제국 이후 우즈벡인들이 세운 여러 국가들이 이 지역의 역사를 이끌어가다가 19세기 제정 러시아에 병합되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에 의해 1924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1991년 소련의 해체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

우즈베키스탄은 동서 문명의 교차로이자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마르칸트는 당시 중국의 장안, 유럽의 콘스탄티노폴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UNESCO World Heritage

우즈베키스탄의 세계 문화 유산

동서 문명의 교차로였던 우즈베키스탄!
인류의 소중한 문화 유산들이 살아 숨쉬고 있어! 함께 살펴보자!

▲ 비비하눔 사원

아미르 티무르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비비하눔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사원이야.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중세 시대의 건물이기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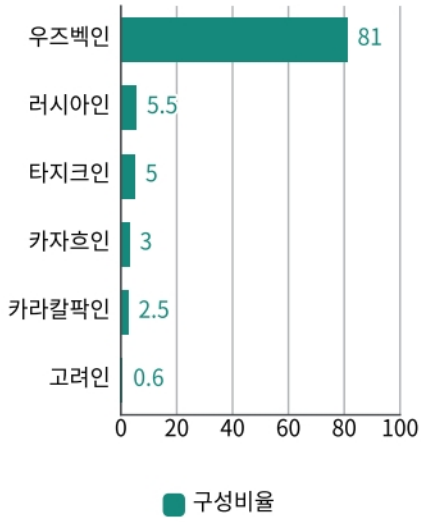
▲ 부하라의 아르크

부하라는 고대 중앙아시아의 박물관과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어. 아르크(성채)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 유산들이 남아있지. 아르크는 도시 안의 도시로 왕들이 거주하고, 요새 안에는 도시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었대.

레기스탄 광장 Registan Square

사마르칸트 레기스탄 광장은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중의 하나야. Registan은 페르시아어로 '모래밭'을 의미해. 예전에는 왕실의 선언문을 듣기 위해 모이는 공공 광장이나 상인들이 모여 시장으로 사용되었대. 동시에 티무르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발전하기도 한 곳이야!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민족 구성



130가지가 넘는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어. 우즈벡인이 가장 많지만, 러시아인, 타지크인, 카자흐인, 카라칼팍인,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러시아에 살다가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한 고려인들도 있지. 이외에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흑해 그리스인까지 살 정도로 많은 민족이 모여사는 곳이 바로 우즈베키스탄이야. 이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

우즈베크어가 공용어지만 러시아와 소련의 영향, 그리고 역사적 이유로 많은 소수 민족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러시아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이자 각 민족 간의 의사 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공통 언어이기도 해.

다문화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들을 받아들여 다채롭고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온 것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와 아랄해의 위기

면화 생산 세계 6위, 수출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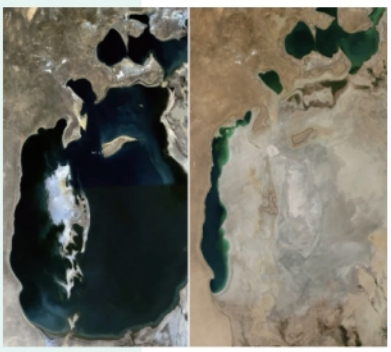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은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면화 생산국이야. 소련의 정책에 힘입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지. 소련은 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을 감싸듯이 흐르고 있는 시르다리야 강과 아무다리야 강의 수자원을 이용해서 목화 플랜테이션 산업을 일으켰어.

시르다리야 강과 아무다리야 강의 물줄기는 아랄해로 흘러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수자원을 이용해서 목화를 재배하고 섬유를 생산하다보니 점차 아랄해가 말라버리기 시작한거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독립 이후 아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어.

면화 생산은 우즈베키스탄의 핵심 산업이야. 그러다 보니 목화를 재배할 때 전국민이 동원되기도 하고, 아동 노동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한때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어. 최근에는 인권 문제와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면서 이 문제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래.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아랄해 회복 문제는 시르다리야 강과 아무다리야 강이 흘러가는 여러 나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아.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아랄해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주요 산업인 면화 산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지. **환경 문제는 한 국가나 민족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걸 잘 보여주고 있어.**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 1989년(왼쪽)과 2014년(오른쪽)의 아랄해 비교